

낙농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선 생산자인 우리부터 변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천직할시 교육청주관 학교장학부모위원 초청 학교급식에 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유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알리고 학교급식 제정을 개편하여 학교 급식율이 제일 떨어지는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관심을 갖고 주최한 자리라 흔쾌히 참석을 허락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백색우유를 안 먹고 기피하는 어린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하시는 교육관계자, 학부모님들께 우유의 화려한 변신을 맛으로 보여드리고 설명하느라 참석한 낙농가들은 목이 쉬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한 가지라도 더 맛있게 하고, 알려 드리고 싶은 소명감에 참석한 낙농가들 점심도 굶고 행사가 끝이 날 때까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물려오는 피로감에 고속도로에서 꾸벅꾸벅 즐기까지 했습니다. 참석하신 여교장 선생님 중에는 학부모께서 이런 것을 처음 보았다며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우유만으로 만든 방부제 첨가제 안 들어간 크림치즈, 내추럴 후레시 치즈 우유와 제철 채소를 가미한 떡, 된장이 들어간 썸장, 옥수수 알갱이 같은 치즈, 쌀가루에 우유를 넣어 부친 지짐이, 과일을 넣어 만든 요쿠르트 등을 맛보시며 급식담당 교사에게 보여주고 아이디어를 주겠다고 싸 달라 하셨습니다.

우유를 마시지는 못 하지만 요리로 또 유제품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



조옥향
여성분과위원장

게 생산을 주도하는 낙농가들 스스로가 어떻게 만드는 지, 먹는 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홍보하고 배우려하는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만이 어려움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몇 일전 낙농관측회의에서도 젓소사육 두수와 농가 수는 줄었지만 유량은 줄지를 않고 소비는 작년보다 줄었다는 통계 자료를 보았습니다. 신문지상에는 연일

환율하락에 한미 FTA, 한일 FTA, 중국의 낙농산업 동향을 읽으며 한국낙농의 미래를 여측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줄어가는 낙농가 가족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마침 출범하는 낙농의무자조금의 역할에 발맞추어 생산과 수급 그리고 판매에 참여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뜻과 의지만 함께 한다면 국산 우유의 가치를 재창조하여 무분별하게 수입되어지는 값싼 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절대 미리포기 하지 말고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화합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구매권을 갖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찾아가는, 준비하는 여성 낙농가로 일선에서 노력하는 낙농가족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나보다는 함께 영위한다는 낙농가로서 소임을 다 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는 확신으로 생산과 소비를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동참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